

# 정부, 저성장 고착화 '비상' 경기진작 · 구조개혁 두 토끼 잡는다

## LTV · DTI 완화 연장 정책자금 80조원 공급 구조조정 지원 강화

정부가 28일 발표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은 성장 둔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 진작과 구조개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재정 조기집행, 개별소비세 인하 등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에 그쳤다.

메르스(MERS) ·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내수가 심각하게 침체했던 지난해 2분기(0.4%)와 같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1.2%를 기록한 뒤 2분기 연속으로 0%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취약 업종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출 · 내수 동반 부진이 동반된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부동산 규제 완화 연장 등의 수단으로 경기 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산업구조 개편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6조5000억원 | ... LTV · DTI 완화 연장

정부는 우선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운용의 신속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 목표를 268조6000억원에서 275조2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상향조정하고, 하반기에는 공기업 투자 확대, 지자체 추경 등을 통해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통화정책도 경기 대응을 위해 신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2017년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에 최고 수준 세제 혜택... 정책자금 80조원 공급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구조 개혁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4대 개혁(노동 · 공공 · 교육 · 금융)에 '산업개혁'을 추가해 전반적인

산업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범투자자 투자 금액의 최대 10%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ICT융복합, 문화 · 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는 산은 · 기은, 신 · 기보 등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지원 강화...기업 M&A 때 '세금납부 연기' 범위 확대

취약 분야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시 과제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자기주식 지급시에만 적용되던 기업 분할합병시 과세연기 범위를 모기업 주식 지급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경기 민감업종 ▲개별기업 ▲공급과잉업종 등 3개 트랙을 통해 추진한다. /이성주 기자



**살인기업 옥시 처벌하라**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RB) 본사가 입주해 있는 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살인기업 옥시 규탄 및 옥시 상품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약사들도 빨났다... '옥시 불매' 확산

기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핵심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들이 약국에서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상당수 약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퍼질 조짐이 있다.

옥시는 일반의약품으로 '스트렙실', '개비스콘' 등을 제조 · 공급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 제품을 사지 말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 지역약사회는 옥시를 규탄하는 공식 성명을 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SNS)상에는 옥시의 생산 · 판매 제품 목록과 해당 제품의 대체제를 소개하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옥시는 '옥시코린' 같은 생활용품 뿐 아니라 제산제 '개비스콘', 인후염치료제 '스트렙실' 같은 일반의약품도 제조하고 있어 이를 판매하는 약국에서도 동참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NS에서 약사로 추정되는 이용자 s\*\*\*\*\*는 품목 목록과 함께 "환자분에게 설명하고 대체 가능한 약을 알려야겠다. 구매, 판매 거부로 우리 의사를 표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성주 기자

# 우리캐피탈 · 광주은행, JB금융 '효자'

## 1분기 순이익 역대 최대 규모... 당기순이익 '552억원' 비은행부문 캐피탈 선전 지속 · 광주은행 수익력 회복 영향

JB금융그룹(회장 김한)의 2016년 1분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JB우리캐피탈과 광주은행을 전복은행이 인수한 이후 수익력이 회복된 점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JB금융그룹은 2016년 1분기 공시기준(잠정) 당기순이익이 552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분기 대비 54.7%, 전년동기 대비 158.8%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JB금융그룹 측은 비은행 부문(캐피탈)의 선전이 지속되고 광주은행의 수익력이 회복된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JB우리캐피탈은 JB금융그룹 출범 전인 2011년 9월 전복은행으로 넘어간 이후 당해 8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2012년 85억원의 순이익을 낸 뒤 2013년 211억원, 지난해 305억원을 기록하는 등 수익력이 수직상승했다. 올해는 1분기

에만 200억원에 육박하는 분기 중으로는 역대 최고의 이익을 냈다.

우리금융으로부터 인수한 광주은행 역시 수익성회복이 높아진 반면 대손비용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광주은행의 경우 경영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오면서 자산성장에 따른 핵심이익인 이자이익의 증가와 함께 자산건전성 역시 꾸준히 개선되어 전분기대비 32.0% 늘어난 287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JB금융그룹의 역대 최고 분기 수익에는 전복은행의 '내실성장' 전략도 한 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복은행은 2015년부터 계속된 '내실성장' 전략으로 경비절감, 총당금 감소에 역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분기 순이익이 전분기대비 548.9% 증가한 170억원을 달성했다.

은행의 핵심이익 지표인 그룹(은행) 분기중 NIM(순이자마진)은 전분기 대비 0.02%p 하락한 2.22%(전복은행 2.34%, 광주은행 2.13%)를 유지했다. 건전성지표인 그룹 연체비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1.19%, 고정이자여신비율(NPL)은 전분기대비 0.07%p 하락한 1.20%로 소폭 개선 됐고, 대손비용률(Credit Cost) 역시 영업이익의 증가와 총당금전입액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2%p 하락한 0.38%(전복은행 0.55%, 광주은행 0.21%)를 기록했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해 캐피탈의 선진으로 그룹내 수익 기여도가 36%까지 확대됐고, 올해 1분기에는 광주은행의 수익 기여도가 44%로 전년말대비 10%p가 증가하면서 은행부문 이익기여도가 눈에 띄게 확대된 것이 큰 폭의 순이익 증가를 견인했다"면서 "또한 현재 해운 · 조선업종에 대한 업황부진과 구조조정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나 JB금융 그룹의 경우 관련업종 익스포저가 크지 않은데다 향후 총당금 부담이 적어 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전북지역사랑봉사단, 익산시 '사랑 한가득 주먹밥' 봉사활동

원광사회복지관서 무료급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임용택 은행장, 최강성 노조위원장)은 27일 익산시 신동에 위치한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소외계층 어르신 200여명을 초청해 '제6회 사랑한가득 주먹밥'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북은행 임직원 급여 1% 성금으로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강성 노조위원장, 이정영 부행장을 비롯해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주먹밥을 직접 만들고 과일을 준비하며 구슬땀을 흘렸고, 식사 후 기념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전했다.

지역사랑봉사단 최강성 단장은 "지역의 어르신들과 보다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은행 직원들의 사랑이 어르신들께 전해졌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효(孝) 콘서트', 다문화가정 부모의 언어와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공존의 가치를 배우도록 돕는 '다문화가정 희망도서 드림',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JB 멘토링 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

## 전북경진원-문화콘텐츠진흥원 상호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청년창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공동사업 발굴과 상호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보육 및 창업교육 업무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운영, 문화컨텐츠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 상호교류, 전문인력 상호 활용 등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교류협약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발전의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역량을 제고하는데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 전주롯데백, 김치 나눔 행사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은 28일 완산구청과 연계해 전주지역 사회적 배려 이웃 50가구에 불철 입맛 돋구는 삼색김치(무생채, 열무김치, 배추김치)와 쌀을 직접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김치는 롯데백화점 사탕대 봉사단 20여 명이 나서 3시간여 동안 팔을 걷어 붙였다.

롯데백화점 박중구 점장은 "주위를 돌아보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은데,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앞으로 지역 내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신보 창립 40주년 기념 '신용보험 40 리더스포럼'

신용보증기금(이장 서근우, 이하 '신보')은 28일 충주시에 소재한 기업은행 연수원에서 중소기업청, 보험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와 우수고객 40명을 초청해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로 '신용보험 40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보험연구원 최창희 박사는 첫 번째 주제발표 '신용보험의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을 통해 "보험가입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장률(SGR: Sustainable Growth Rate)이 전체 중소기업 대비 13.6%p 높게 나타났다"며, "매출채권보증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윌러햄스 코리아 류남훈 지사장은 '세계 신용보험시장의 동향 및 시사점' 주제발표에서, 유럽의 선진 신용보험 시장 발달과정 및 세계 신용보험시장의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신용보험 시장이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영수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